



■ KIA 금주의 프로야구

전반기 마지막 안방 3연전에 팀 사활을 걸었다. 숨겨본 '4위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프로야구가 주중 3연전을 끝으로 내달 25일 까지 올림픽 휴식에 들어간다.



29~31일·광주

LG 잡고 달콤한 '올림픽 휴가'를...

4·5위와 불과 1.5 게임차

한더위 승수싸기 총력전

28일 현재 4위 삼성 라이온즈와 5위 롯데 자이언츠는 게임차 없이 박빙의 승률 싸움을 벌이고 있고, 6위 KIA는 두 팀을 1.5게임차로 바짝 쫓고 있는 만큼 승위를 장담할 수 없는 흥미진진한 3연전이 예상된다.

4강의 기로에 서있는 KIA 타이거즈는 29일부터 LG 트윈스와의 홈 3연전을 갖고 마지막 판세 뒤집기에 들어간다. 1위 SK와 2위 두산을 상대해야 하는 삼성·롯데보다는 한결 수월한 상대를 만났다. 상대전적에서도 KIA가 LG에 6승5패로 앞서 있는 것에 비해 삼성과 롯데는 각각 5승10패, 4승8패로 SK와 두산에 열세를 보이고 있다.

선발이 실패한 삼성과 마무리가 부실한 롯데에 비하면 KIA 마운드의 짜임새도 좋다. LG와의 3연전 첫 승 선봉에는 데이비

◇프로야구 중간순위 (28일 현재)

Table with 7 columns: 순위, 팀, 승, 패, 승률, 게임차, 연속. Lists teams SK, 두산, 한화, 삼성, 롯데, KIA, and LG with their respective stats.

스가 나선다.

LG의 옥스프링과 용병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 데이비스는 지난 24일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6과 3분의 1이닝동안 9피안타(1홈런) 6실점(5자책점)으로 부진했지만 한국 무대에서 4번 등판, 150km가 넘는 강속구와 다양한 변화구 등을 앞세워 3.04의 평균자책점으로 선전하고 있다.

마지막 3연전에는 데이비스를 필두로 해서 이대진·이병석·윤석민의 선발진이 보직에 상관없이 총 출동한다. 27일 우리전에서 중간 계투로 첫 선을 보인 디아즈와 마무리 한기주도 뒷문 지키기에 나서

게 된다. 타선 중심에는 장성호·최희섭이 버티고 있다.

최근 5경기에서 무안타로 침묵하며 7월 타율이 0.245에 머물던 장성호는 27일 우리와의 경기에서 한 달 여만에 홈런포를 가동시키는 등 5타수 3안타 3타점의 활약을 펼치며 부진 탈출을 알렸다. 돌아온 최희섭은 최근 5경기에서 0.438의 타율을 선보이며 오랜 공백을 만회하고 있다. '야구천재' 이종범도 연일 홈런타를 터트리며 3할 타율고지에 올라서는 등 재정비된 거포 타선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문제는 집중력이다.

KIA는 지난주 삼성과의 광주 경기에서 3선발을 마운드에 올리고도 1승 2패를 챙기는데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시즌 처음으로 타선 탓에 4위를 눈앞에 두고 주저앉았던 만큼 이번 3연전에서는 작은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

유리한 고지에서 '달콤한' 휴식을 누리기를 위한 KIA·삼성·롯데의 전반기 막판 총력전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8일 오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16회 백록기 전국고교축구대회에서 우승한 전남 광양제철고 선수들이 트로피를 받은 뒤 서로 동료수를 뿌리며 좋아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양제철고 전국 최강

'강호' 금호고 1-0 제압

백록기 고교축구 결승

전남 광양제철고가 제16회 백록기 전국고교축구대회에서 2년 만에 정상에 탈환했다. 광양제철고는 28일 오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 대회 결승전에서 후반 32분 지동원의 결승골로 강호 광주 금호고를 1-0

으로 물리쳤다.

1993년 시작된 이 대회에서 2006년 정상에 올랐던 광양제철고는 2년 만에 우승컵을 다시 찾아왔다.

후반 중반까지 득점 없이 헛심 공방을 벌이던 광양제철고는 후반 32분 미드필드 중앙에서 얻어낸 프리킥을 지동원(2년)이 오른발로 때려 왼쪽골망을 가르며 승부를 결정지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최나연 아쉬운 준우승

LPGA 에비앙마스터스

생애 첫 우승을 눈앞에 뒀던 '열정' 최나연(21·SK텔레콤·사진)과 브라질 교포 안필라 박(20·LG전자)이 8년이나 한국 선수 챔피언을 거머쥔 '알프스 링크'에 올랐다.

최나연과 안필라 박은 28일 프랑스 에비앙-랑의 에비앙마스터스 골프장에서 열린 LPGA투어 에비앙마스터스 최종일 연장 접전 끝에 43세의 노장 헬렌 알프레드슨(스웨덴)에게 우승컵을 내줬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연합뉴스

함평골프고 종합 우승

금1, 은2, 동2개 획득

KBS배 전국 레슬링

함평골프고등학교 레슬링부가 양정모 올림픽 제패기부 제3회 KBS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종합우승의 쾌거를 이뤘다. 함평골프고 레슬링부는 지난 24~27일까지 청주국민생활관에서 열린 대회에서 금1, 은2, 동2개를 획득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함평골프고는 지난 6월 제36회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이 전국학생레슬링선수권대회 종합우승에 이어 잇따라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해 레슬링 명문고로 자리매김했다.

이지연(함평골프고 1년)은 그레코로만형 42kg에서 전복체고 박진권을 2-0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차지했으며 장재학(함평골프고 3년)과 강성혁(함평골프고 2년)은 각각 그레코로만형 58kg과 그레코로만형 50kg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지연은 최우수선수상을 획득했고 장태영 함평골프고 교사는 최우수지도자상을 수상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9일(화) ▲남자핸드볼 국가대표 평가전 <한국·폴란드>(12:40·MBC)

■ 이승엽 홈런...日 엇갈린 반응

하라 감독 "기다렸던 한방"

日 언론 "올림픽서 큰 위협"



이승엽(32·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시즌 1호포를 두고 일본 내에서 회비가 엇갈렸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스포츠호치는 28일 "기다리고 기다린 한방이었다"는 하라 다쓰노리 요미우리 감독의 말을 전했다.

하라 감독은 또 "이걸로 이승엽이 평소 상태를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감독 뿐이 아니었다. 2군에 내려간 이승엽에게 꾸준히 전화를 걸어 격려한 포수 아베 신노스케는 "엄청난 홈런이었다"고 기뻐했다.

다른 누구보다 이승엽 본인의 감격이 컸다. 개막 직후 이승엽은 지난해 말 수술한 왼손 엄지 인대 주변에 염증이 생겨 플 스틱을

할 수 없었다. 4월14일 2군에 내려간 뒤 1군 경기 TV 중계도 보지 않고 치료에 전력을 쏟았다. 타격시 상반신이 앞으로 나오는 버릇도 고쳤다. 고된 훈련 결과 체중은 개막 직후보다 2kg 줄어든 92kg가 됐다.

그는 6회 말 홈런을 치고 난 뒤 7회 초 수비 때 우측 펜스 쪽 홈 관중에게 모자를 벗고 깊이 머리를 숙였다. "어려울 때에도 지지하고 응원해준 팬 여러분께 감사하고 싶다"는 심정이었다. 일본 내 반응이 환영 일색인 것만은 아니다. 또 다른 스포츠전문지 스포니치는 "베이징올림픽 경쟁국인 한국 주포의 부활은 일본 대표팀에게는 큰 위협"이라는 시각을 전했다. /연합뉴스

박찬호 시즌 첫 홈드

박찬호(35·LA 다저스)가 시즌 첫 홈드를 기록했다.

박찬호는 28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워싱턴 내셔널스와 홈경기에서 2-0으로 앞선 7회 초 팀의 두 번째 투수로 등판,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시즌 처음이자 프로 통산 다섯번째 홈드를 거뒀다.

홈드는 세이프 상황에서 마운드에 올라 리드를 지키고 마운드를 다른 투수에게 넘겼을 때 기록된다. 박찬호는 1996년에만 4홈드를 기록한 이래 대부분 선발로 뛰느라 홈드 기록이 없었다.

박찬호는 시즌 4승2패1세이프1홈드를 기록했고, 평균자책점은 2.48(종전 2.51)로 내려갔다. 다저스는 8회 귀환치와 9회 조너선 브룩스턴을 마운드에 올려 2-0 승리를 따냈고, 시즌 52승52패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 애리조나(53승51패)를 1.0게임차로 뒤쫓았다. /연합뉴스

작은만남 큰 기쁨...광주일보 친절함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Advertisement for '개업·성업 안내' (Opening/Business Announcement)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in a grid format.